

# 668년 평양성전투와 그 교훈

전 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슬기롭고 용맹하였을뿐아니라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1페이지)

고구려는 건국직후부터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었으며 강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여 령토와 인구를 확대하였다. 고구려의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와 문화의 발전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당당한 지위를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

오래동안 계속되는 외적의 침략을 쳐물리치며 국력을 떨쳐오던 고구려는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은 직후부터 봉건지배계급내부에서 권력싸움이 일어나 국가의 통치체계가 와해되면서 최악의 혼란상태에 휘말려들었다.

이런 형편에서도 고구려인민들은 침공해오는 라당련합군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668년에 진행된 평양성전투에서 적들에 의하여 평양성이 함락되기는 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발휘한 고구려인민들의 항전열의는 최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668년에 고구려인민들이 라당련합군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진행한 평양성전투와 관련한 력사자료들이 매우 적은것으로 하여 선행한 연구들에서는 평양성전투에서 고구려의 군민들이 큰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적들에게 성을 강점당한것으로 취급하였다.

660년 백제가 무너지게 될 시각에 계백을 비롯한 5 000명의 애국적군인들이 수도를 향하여 밀려드는 수만명의 신라군을 대항하여 결사적으로 저항한것만 보아도 고구려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평양성전투가 진행될 당시 인민들의 투쟁도 평양성과 그 주변의 모든 인적, 물적수단을 총동원한 격렬한 싸움이였다고 보는것이 옳을것 같다.

평양성전투를 취급한 력사책들에는 고구려사람들이 진행한 평양성전투와 관련한 내용을 매우 간단히 서술하였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평양성전투에서 《공》을 세운자들에게 표창을 준 사실이 기록되었을뿐 신라군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책의 고구려본기에서도 고구려인민들의 항전내용을 매우 간단히 서술하여 그에 대하여 알수 없게 하고있다. 그리고 당나라의 력사를 전하는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도 평양성에서의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수 없다.

평양성전투와 관련한 력사기록이 이렇게 되게 된것은 력사편찬자들이 평양성전투과정에서 당한 저들의 막대한 손실을 극력 은폐하려고 한당나라의 력사책들을 그대로 리용한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668년 라당련합군의 평양성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항전문제를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7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구려의 정치정세는 혼란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당나라에 대하여 사대투항주의정책을 실시하던 영류왕과 대신들을 처단한 후 막리지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고구려에 대한 당나라의 내정간섭을 물리치면서 강경하게 나갔다.

그러나 당나라와 맞서 싸우던 연개소문이 666년초에 사망하자 음모군들이 나타나 연개소문의 아들들사이에 췌기를 박고 리간을 조장시켰다. 그리하여 연개소문의 맏아들인

대막리지 연남생이 권력다툼과 음모군들의 간계에 빠져 당나라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해 12월에는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가 고구려남부의 12개 성의 763호의 인구 3 500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는 사건(《삼국사기》권 제6 신라본기 문무왕 6년, 권 제22 고구려본기 보장왕 25년)이 또 일어났다.

고구려집권층의 권력싸움과 투항주의적행위는 고구려군대의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국가의 통치체계를 급속히 와해시켰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공을 시작하였다.

당나라는 666년 12월에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침략군을 재편성하였다. 당나라의 고종은 리적을 룡동방면행군 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사렬소상 백안륙과 학처준을 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방동신과 설필하력을 룡동방면행군 부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수군과 육군의 총관들과 전량사들인 두의적, 독고경운, 광대봉 등은 리적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당시에 편성된 당나라침략군의 총수는 100만명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를 갖춘 당나라침략군은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한편 당나라 고종은 류인원과 김인태를 신라에 보내어 고구려침공에 신라도 협력하게 하였다.

리적이 거느린 침략군은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여 667년 9월 서쪽변방의 군사적요충지들인 신성과 그 주변의 16개 성을 함락시키었다. 적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고구려는 남건이 지휘하는 군사들을 출동시켰으나 적들의 유인과 매복에 걸려 많은 손실을 입었다. 당나라침략군은 련이어 고구려의 남소성과 목저성, 창암성을 함락시켰다.

한편 광대봉이 거느린 적수군이 평양을 향하여 공격하여왔다. 고구려군사들은 안시성과 부여성에서 당나라침략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진행하였으나 성을 내주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부여성이 함락된 후 부여천(주)일대의 30~40여개 성도 적들에게 빼앗겼다.

고구려를 무너뜨릴 야망을 품은 고종은 668년 6월 12일 류인태를 신라에 보내어 옛 백제땅에 주둔하여있던 침략군을 거느리고 동남쪽으로부터 고구려를 협공하게 하였다.

한편 당나라의 요구대로 신라에서도 6월 21일 김유신을 대총관으로 하는 침략군이 편성되고 27~29일에 고구려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668년 6월말부터 북과 남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리적이 거느린 당나라침략자들은 668년 9월에 고구려의 대행성과 옥이성을 점령하고 련이어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며 신라군도 평양성포위에 합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설필하력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밖까지 도착하고 리적의 군사들이 련이어 도착하여 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하였다.》(《삼국사기》권 제22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 9월), 《9월 21일 (신라군이) 당나라군대와 합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하였다.》(《삼국사기》권 제6 신라본기 문무왕 8년)라고 전하고있다.

라당연합군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한달이 넘도록 지구전을 벌리면서 고구려군민들을 투항시키려고 하였으나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성에 의거하여 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안기였다. 무능한 보장왕과 국가의 우두머리 98명이 당나라침략군에 찾아가 항복하였으나 고구려인민들은 평양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적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9월말에 남건이 신성이라는 중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으나 신성은 소장들인 오사, 요모 등을 비밀리에 리적에게 보내어 라당연합군의 성공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5일후에 신성이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라당련합군이 몰밀듯이 평양성으로 쳐들어왔다.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을 맞아 성안의 여러곳에서 결사적으로 싸웠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5일후에 신성이 성문을 열어놓으니 리적이 군사들을 풀어 성에 오르게 하고 북을 두드리고 떠들면서 성에 불을 질렀다.》라고만 서술되어있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자료에는 고구려군민들이 라당련합군과 싸운 전투내용이 거의 없으나 한달이 넘도록 평양성이 포위된 사실만 보아도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으며 평양성안의 여러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라당련합군이 마지막으로 평양성을 공격한 날자가 정확하지 않은것만큼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9월에 《리적이 평양을 함락시켰다.》라고 서술되어있을뿐 평양성공격날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9월 21일에 신라군이 당나라군대와 함께 평양을 포위하니 고구려왕이 우선 남산 등을 보내어 영공(리적)을 방문하여 항복을 요청하였다.》라고 서술되어있다.(《삼국사기》 권 제6 신라본기 문무왕8년)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보장왕을 비롯한 대신들이 투항하였으나 《남건은 오히려 성문을 닫고 대항》하였으며 《5일후에 신성이 성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서술되어있다.

이 자료들은 고구려왕과 남산 등이 항복을 청한것과 동시에 평양성이 함락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고구려의 보장왕이 적에게 투항을 요청한 날이 9월 21일이고 왕과 대신들이 투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건이 항전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신성이 적들과 내통한 후 5일이 지난 후 성문을 열어놓았으므로 9월 21일~30일사이에서 5일을 빼면 남은 5일간의 어느날에 적들이 열려진 성문을 통과하여 성안으로 쳐들어온것으로 볼수 있다. 적들이 평양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평양성안의 군대와 인민들이 마지막으로 결전을 벌린 기간은 9월 26일부터 30일이였다고 볼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정확한 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것이 《조선단대사》 년표에 《⑨(9월을 의미함-필자) 중 신성이 반역하여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격전끝에 고구려왕조의 종말》이라고 서술한것과 차이나는것은 아니다.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평양성안으로 쳐들어오는 침략자들과 치열한 항전을 벌리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자료에서 찾아볼수 있다. 《삼국사기》신라본기 권 제6 문무왕 8년(668년) 10월 22일에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서 《공로》를 세운 김유신을 비롯한 주요인물들에게 《전공》에 따라 위품과 곡식을 준 사실을 서술하면서 《한산주 소감 박경한이 평양성안에서 군주 술탈을 죽여 전공이 제1이고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싸움에서 전공이 제1이므로 다 함께 일길찬 위를 주고 벼 1 000석을 주었으며 서당 당주 김둔산은 평양군영싸움에서 전공이 제1이므로 사찬의 위를 주고 벼 700석을 주었으며 군사 남한산 북거는 평양성 북문싸움에서 전공이 제1이므로 술간의 위를 주고 곡식 1 000석을, 군사 부양, 구기는 평양 남교싸움에서 전공이 제1이므로 술간의 위를 주고 곡식 700석을 주었으며 가군사 비렬홀사람 세활은 평양 소성(少城)싸움에서 전공이 제1이므로 고간의 위를 주고 곡식 500석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자료는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이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신라침략군과 5개의 중요지점들 즉 평양성 대문과 평양군영, 평양성 북문, 평양성 남교, 평양 소성일대에서 전투를

진행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지점들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전투과정을 전하지 않았으나 매우 치열하였을것으로 인정된다.

군주 술탈을 비롯한 애국심이 강한 고구려사람들은 평양성을 완강히 방어하였다. 그로 하여 신라침략군은 수많은 죽음을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신라에서 668년 11월 18일 전쟁에서 죽은자들을 《위로》한것만 보아도 고구려군민들이 결사적으로 싸워 적들에게 큰 손실을 주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당나라침략자들에게도 커다란 타격을 안기였다.

력사자료들에는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이 평양성의 어느 지점들에서 당나라침략자들과 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있다. 신라침략자들과의 싸움이 평양성의 대문과 군영, 북문과 남교, 소성일대에서 벌어졌다면 그밖의 경창문, 보통문, 선요문들을 비롯한 평양성서부의 여러 지점들에서는 당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것으로 인정된다.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활과 창, 칼을 비롯한 무기와 무장을 잡고 평양성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치열한 항전을 벌려 당나라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그러나 적아간의 압도적인 역량상차이와 통일적인 지휘가 없었던탓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속에서 희생자들이 늘어났으며 여러 부대들이 포위되는 등 손실이 커감에 따라 항전은 좌절되고 성은 끝끝내 라당련합군에게 강점되고말았다. 라당련합군을 물리치기 위한 평양성에서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이 좌절된것은 전적으로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 나라와 인민을 배반한데 있었다.

라당련합군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평양성전투의 실패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에 교훈을 남기였다.

교훈은 우선 적에게 투항하거나 변절하는자들이 생기면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는것이다.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길잡이에 이미 고구려를 배반하고 당나라에 투항한 막리지 남생이 앞장에 섰으며 평양성이 라당련합군의 대병력에 의하여 포위되자 결사적으로 항전하려는 군민들의 지향과는 반대로 고구려의 보장왕을 비롯한 98명의 대신들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보다도 저들개인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자주권이 외세에게 통락당하게 된다는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희기를 들고 적들에게 투항하였으며 지어 평양성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은 신성과 같은자는 적들과 내통하면서 성문까지 열어주었다. 이렇게 고구려의 자주권을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를 판가름하는 평양성전투에서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층은 고구려군민들과 뜻과 힘을 합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이 전면에 나섰을 때 봉건관료들이 인민을 배반하고 투항함으로써 평양성전투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피흘려 싸웠으나 성은 침략자들에게 함락당하였다.

교훈은 또한 군사적증원을 받을수 없는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것을 뚫기 위한 주동적인 반공격전을 벌리지 않고 방어만하면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는것이다.

라당련합군은 한달이 넘도록 평양성을 포위하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물론 고구려군사들은 남건의 지휘밑에 여러번 성밖으로 진출하여 적들을 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평양성전투를 지휘한 관료들은 적들의 포위를 뚫기 위한 대규모적인 반공격전을 벌이지 않고 소규모의 기습전을 벌였으며 실패하면 다시 성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외부의 군사적증원을 기대할수 없는 고립무원한 상태의 성곽방어에 매달림으로써 적들에게 공격준비를 충분히 갖추수 있게 하였으며 결국 적들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게 되었다.

교훈은 또한 방어지역안의 인적, 물적준비상태와 관련한 비밀이 누설되면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는것이다.

당시의 사실을 전하는 력사자료들에 적들이 평양성을 포위한 후 공격을 하지 않고 지구전을 획책한것은 성이 매우 견고한 조건에서 성안에서 군량이 떨어질 때를 바라고 그렇게 한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이미 성의 비밀이 누설된것과 관련되었다.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하여 고구려의 내부형편 특히 평양성의 방비상태와 성안에 있는 군량저축상태 등을 비롯한 평양성의 모든 비밀을 적들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은 668년 2월에 당나라의 시어사 가언충이 당고종의 명령에 따라 룡동으로 와서 전선형편을 룡해한 후 돌아가 국왕에게 《남생이...우리의 앞잡이가 되었으므로 적(고구려)의 내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보고한것만 보아도 적들이 평양성안의 실패와 관련한 비밀을 잘 알고 성을 공격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결국 평양성의 비밀이 적들에게 넘어감으로써 고구려의 군민들은 적들의 침공을 막아낼수 없었다.

이렇듯 668년 평양성전투는 고구려군대와 인민이 라당련합군의 침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슬기와 용명을 력사에 전하고있으며 또한 교훈을 안겨주고있다.